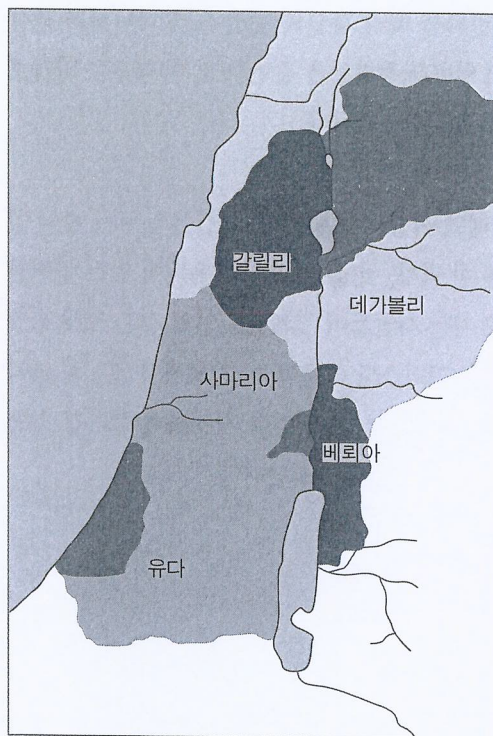


## 제 6 6 강

# 믿음의 실천

■ 성경본문 야고보서 1:1-5:20, 유다서 1:1-25 ■

### 프렐류드(Prelude)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소중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와 반대되는 야고보서를 대면합니다. 행위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야고보서는 성경에 들어오는 '정경화'(正經化-canon) 과정에서부터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중시하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절되고 끊어진 믿음과 행위,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맺어주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와 함께 연구하는 유다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두 이단, 영지주의와 도덕 폐기론에 대한 반교며 동시에 신앙과 생활의 이음을 만들어가는 공동서신입니다.

## I. 주요 내용

1. 믿음의 행함(야고보서 1:19-27 ; 2:14-26)
2. 부와 가난(야고보서 1:1-11 ; 2:1-13 ; 5:1-6)
3. 이단자에 대한 경계와 믿음의 수호(유다서 1:1-19)

## II. 시대적 배경

야고보서의 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대제사장 안나누스 2세에 의해 주후 62년에 순교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62년 이전의 서신이었으며,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따라 널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과 격려를 담은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특정 교회를 위해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 광범위한 회중 앞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독자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 저자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 보고 있으며 믿음(유 1:3)과 사도의 기억(유 1:17-18)을 강조하고 있어서 사도 시대 이후인 주후 85-90년 사이를 기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연대표〉

야고보서(주후 62)

유다서(70-92)

### III. 말씀과 해석

#### 1. 믿음의 행함(야고보서 1:19-27, 2:14-26)

야고보서의 핵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말씀을 행하는 자”(야고보서 1:22)
- (2)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음”(야고보서 2:14, 17)
- (3)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 기생 라합의 탐정꾼 대접, (야고보서 2:23, 25)
- (4) 욥의 인내(야고보서 5:11), 엘리야의 기도(야고보서 5:17)는 모두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말씀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믿음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를 살고 있는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二重性), ‘이원성’(二元性-double mind)에 대한 충고이고 경고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이중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기로 몰아간 원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허구를 질타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를 들어 믿음은 곧 행위이고 행위는 곧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신앙과 삶 사이에 놓인 이중성, 단절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선언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행위라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2. 부와 가난(야고보서 1:1-11, 2:1-13, 5:1-6)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공존해 있었습니다(약 1:9-11). 그러나 문제는 부자들의 ‘자랑’과 ‘차별’이었습니다(약 2:1-11).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회당에서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예우하고 가난한 자는 천시하고 있었습니다(약 2:2-4). 이때 야고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하셨다고 했습니다(약 2:5).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를 향해 있다고 본 야고보는 부자를 향해서는 강한 경고로 이어갔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리고 이 부자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샅”의 하소연도 듣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약 5:1-4).

이것은 ‘계급 투쟁’을 선동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약 5:13-15). 야고보는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치유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 3. 이단자에 대한 경계와 믿음의 수호(유다서 1:1-19)

유다서는 비록 한 장의 글이지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알리는 편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들은

- (1) 경건하지 않음(유 1:14, 15, 18)
- (2) 정욕에 사로잡힘(유 1:4, 8, 16, 18)
- (3)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김(유 1:8)
- (4)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유 1:8, 10)
- (5) 그리스도를 부인(유 1:4)
- (6) 성령이 없음(유 1:19)
- (7) 원망과 불만이 많음(유 1:16)
- (8) 사랑과 아침을 늘어놓음(유 1:16)
- (9) 당파를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킴(유 19)
- (10) 육체를 더럽힘(유 1:7, 8, 23)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이들을 구약에 나타난

- (1)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 14:26-35 참조),

(2)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천사들(창 6:1-4 참조),

(3) 간음으로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창 19:4-25 참조),

(4) 모세의 시체를 매장하려는 천사 미가엘과 마귀와의 논쟁(신 34:6; 단 10:13, 21,

12:1 참조)

(5) 형제를 죽인 가인(창 4:8-16),

(6) 거짓 선지자 발람(민 22-24장, 31:16),

(7) 배역한 고라(민 16장)를 들어 유비법으로 모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죽음과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유 1:21). 이것이 유다서입니다.

#### IV. 성찰과 나눔

1.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순례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교 교리 논쟁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역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신학의 논제는 주후 4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3위 1체론'과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때부터는 '칭의'(稱義)라 부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義認) 사상과 '성화'(聖化) 사상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로마서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는 모두 의롭게 되고, 의로워진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롬 15:2). 이것이 바울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행함을 믿음의 표현으로 보고 바울의 표현을 거꾸로 풀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같이 믿음 없는 행함은 위선과 교만이었습니다(약 2:1-4, 5:1-4).

3.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상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현의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초신자들의 모임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믿음의 행함’을 권고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대결적인 언어로 바울과 야고보를 해석하고 표현해온 것은 큰 잘못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한 복음을 다른 언어와 순서로 풀이한 것뿐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것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서는 하나이고 연합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 자체에 악함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함께 나누라는 데 근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공동선(共同善)을 이루는 데 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제는 입으로만, 혀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믿어선 안 됩니다. 손과 발로, 몸으로, 생활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허황되고 무익한 이론 싸움이나 논쟁은 오히려 사악한 이단 세력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입니다.